

환경보전, 누가 할 것인가



김정빈
(본 연합회 감사)

세계 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생각합니다. 정부가 환경오염을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일선배출업소에 행정지도단속을 실시한 지 어언 1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 옛말에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다 —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의 현실은 더욱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환경오염의 주범은 1차적으로 의·식·주 해결을 위한 수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염의 심각함을 인식한 순간, 인간은 자연의 섭리에 의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일상 생활을 영유하여 왔지만 다시는 자연이 우리에게 그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함이 엄습,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환경보호의 첨병으로 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어깨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일부 양식없는 기업주와 차대들의 공분 언저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공업업 국으로 왔든을 막론한 정부의 정책하에 정부의 과잉 지원에 의해 성장한 각종 공업업체인 기업주와 차대들의 책임이 큼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다짐한 사실이 겨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차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특정 한 두 사람의 책임이나 감독을 초월하여 두산전자 기술진의 안이한 생각과 1개월 조업중단기간중의 수십억원의 손해를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고자 하는 성급함에서 재발된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던 것입니다. 성심성의껏 국민의 생명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나 자신의 생명위험도를 생각하여 보았을 때 그토록 허술하게 보수작업을 할수 있었다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업주의 양식과 도덕성에 과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기업주가 사된 일부 차대들의 환경관리인을 천대하고 멸시하였던 것이 조금이나마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기업의 환경문제를 공방구치는 것을 방기하고서 하는 일로써 기업주와 차대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과잉 지원에 의해 성장한 각종 공업업체인 기업주와 차대들의 책임이 큼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